

고학력화 정도에 따른 학력별 상대적 임금수준 국제비교

- 2016년 OECD 기준 우리나라 청년층(25~34세)의 초대졸 이상(ISCED : Tertiary education, 고등교육 이상) 인구 비중이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냄(그림 1 참조).
 -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살펴보면, 졸업·중퇴자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전체 청년인구 중 고졸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33.6%에서 2016년 19.5%로 14.1%p가량 하락한 반면, 대졸 이상 인구 비중은 동기간 중 15.2%p 증가하여 2016년에 52.9%를 기록함.
 - 국제적으로는 OECD 회원국 및 비교국가들 중 캐나다(61%), 영국(52%), 스위스(49%), 노르웨이(49%) 등이 OECD 평균보다 높은 초대졸 이상 청년인구 비중을 보였고 인도(14%), 중국(18%), 멕시코(22%), 이탈리아(26%) 등이 평균을 하회하는 초대졸 이상 청년인구 비중을 보였음.
 -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1965년부터 2016년 사이에 고졸(ISCED : Upper secondary, 후기중등교육) 미만 청년인구 비중이 75%에서 2%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초대졸 이상 청년인구 비중이 37%에서 70%로 증가하여 OECD 회원국 가운데 청년의 고학력화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들어 전반적인 OECD 국가에서 고학력 청년의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으며 25~64세로 분석범위를 확대하더라도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초대졸 이상 인구 비중이 평균 14%에서 36%로 두 배 이상 증가함.

- 한편 교육수준별로 상대적인 임금수준을 비교했을 때, 전반적인 OECD 국가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 임금수준이 높았지만 그 정도에 있어 차이를 보임(그림 2 참조).
 - 25~64세 고졸 인구의 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초대졸 이상의 상대적 임금지수¹⁾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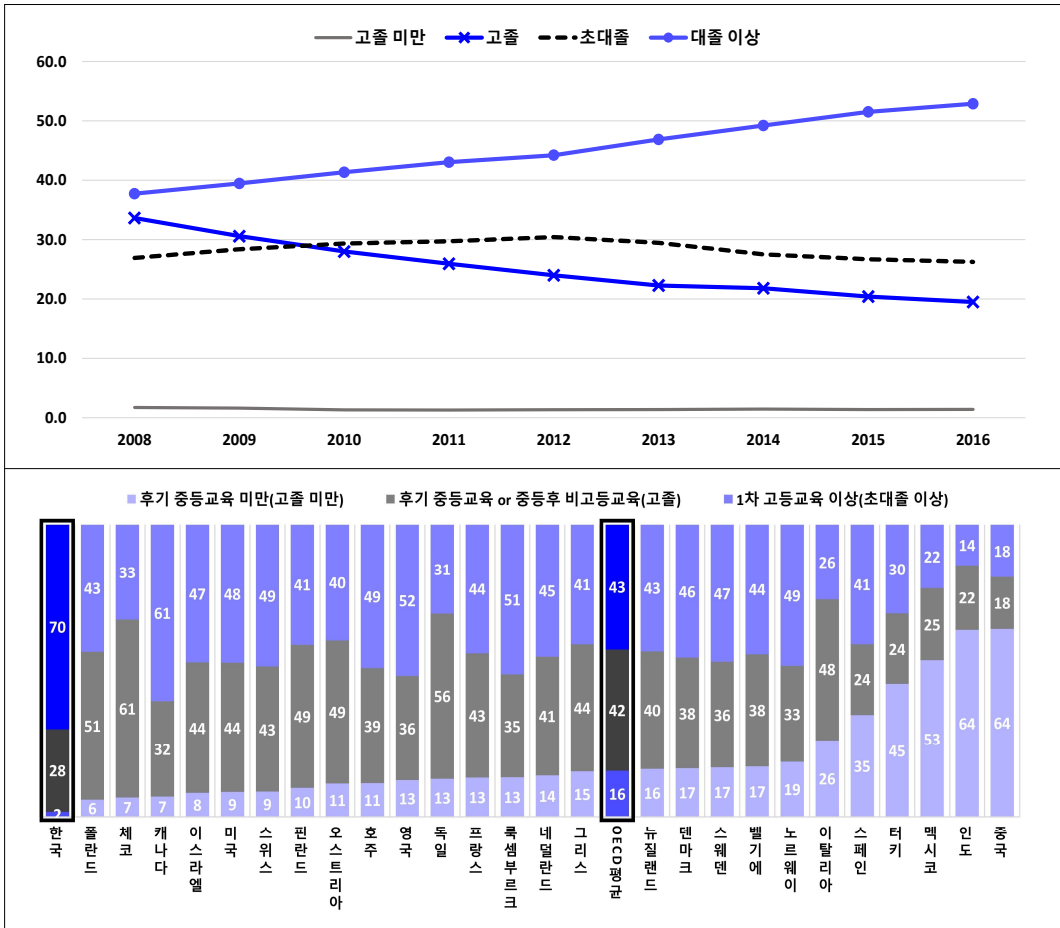
1) 상대적 임금지수는 각 국가의 25~64세 고졸(ISCED : Upper secondary education) 취업자의 소득세전 임금을 100으로 설정하여 고졸대비 임금의 상대적 크기에 대해 나타내는 지수임.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산정에 전일제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하고 자영업자를 제외하고 있으며 정부의 무상복지서비스는 고려되지 않았음.

OECD 평균 156으로 나타나 고졸에 비해 초대졸 이상 인구가 56% 임금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초대졸 이상 인구의 임금에 관한 상대적(고졸대비)인 이득이 스웨덴(17%), 노르웨이(28%), 핀란드(37%) 등에서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난 반면, 칠레(137%), 헝가리(115%), 미국(74%) 등에서는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소폭 낮은 초대졸 이상 임금지수(141)를 보이며 초대졸 이상 인구가 고졸 인구 임금수준 대비 41%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청년층(25~34세) 교육수준별 인구분포 현황 및 OECD 주요국가 및 비교국 국제비교(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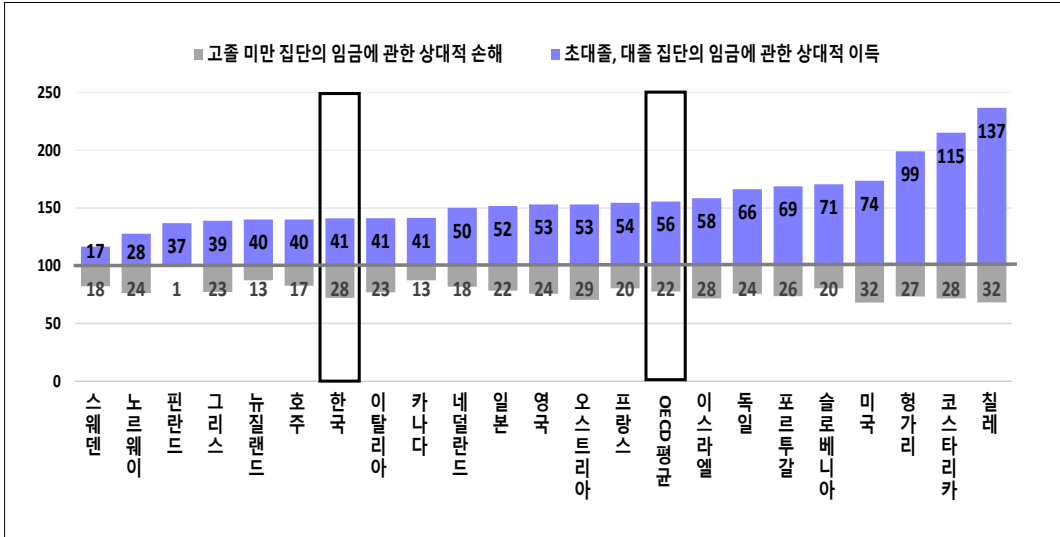
(단위 : %)



주 : 1) 위 인구 분포자료는 수학여부가 졸업·중퇴자만을 포함한 통계임.
 2) 아래 국제비교 자료에서 인도는 2015년, 중국은 2010년 자료임.
 자료 :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2) OECD(2017), 「Education at a Glance 2017: OECD indicators」.

[그림 2] OECD 주요국가 및 비교국가의 교육수준별 고졸(=100)대비 상대적 임금비교(2015)

(단위 : %)



주 : 1) 대상연령 범위는 24~64세임.

2) 핀란드, 네덜란드는 2014년, 이탈리아는 2013년, 일본은 2012년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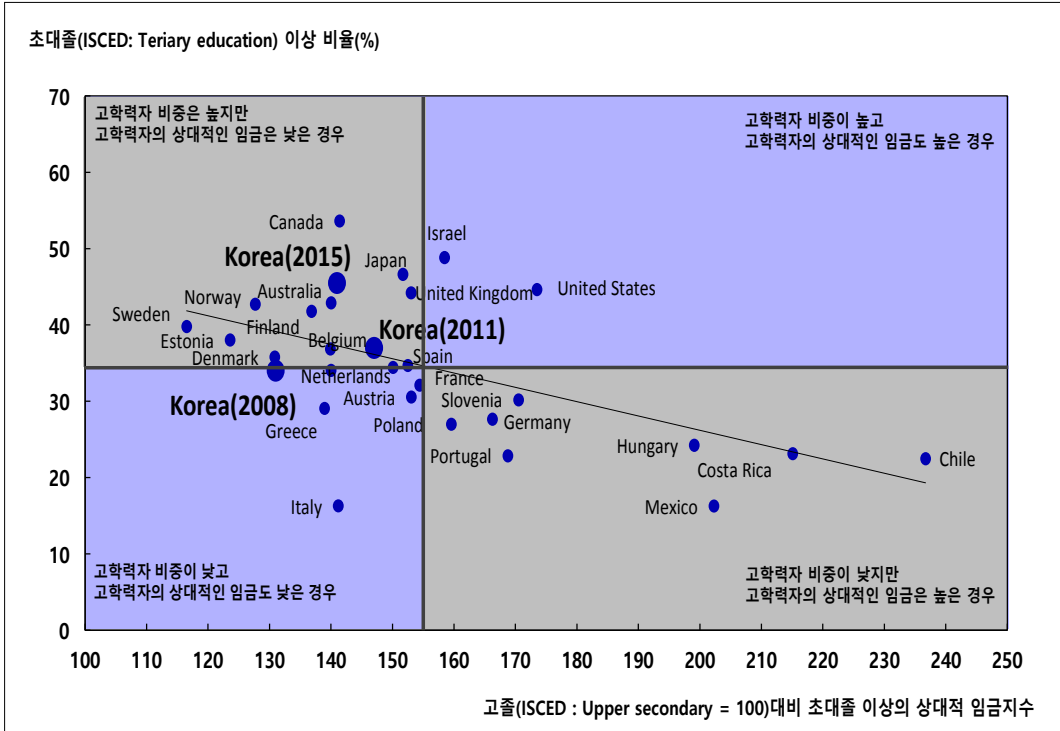
자료 : OECD(2017), 「Education at a Glance 2017: OECD indicators」.

○ 고학력화 정도와 교육수준별 임금수준의 차이는 일정부분 상관관계를 지니는데, 고학력화가 많이 진행된 국가들에서 고학력자들의 임금에 대한 상대적 이득이 작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3 참조).

- OECD 평균을 기준으로 칠레, 멕시코, 헝가리와 같이 초대졸 이상 인구비중이 낮은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고학력자 임금수준이 관찰되고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같이 높은 고학력화 수준을 보이는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고학력자 임금수준이 나타남.
-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25~64세 기준 초대졸 이상 인구비중이 45%, 상대적 임금지수가 141을 기록하면서 OECD 평균을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 고학력자의 비중이 높으면서 상대적 임금수준이 낮은 영역에 속해 있음.
- 초대졸 이상 인구비중은 2008년 34%, 2011년 37%, 2015년 45%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상대적 임금지수 또한 131, 147, 141로 고졸 임금수준 대비 초대졸 임금의 상대적 이득이 상당기간 OECD 평균보다 낮은 영역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3] OECD 주요국가 및 비교국가의 고졸(=100)대비 초대졸 이상의 상대적 임금지수와 초대졸 이상 인구비중의 관계(2015)

(단위 : %, index)



주 : 1) 대상연령 범위는 24~64세임.

2) 벨기에, 캐나다, 핀란드,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은 2014년, 프랑스, 이탈리아는 2013년, 일본은 2012년 자료임.

자료 : OECD, 「Education at a Glance : OECD indicators」, 각 연도.

(김종욱, 동향분석실 연구원)